



2018학년도 경희대학교

모의논술고사 문제지(사회계)

지원학부(과) ()

수험번호

성명 ()

<유의사항>

1. 제목은 쓰지 마시고 특별한 표시를 하지 마시오.
2.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쓰지 마시오.
3. 답안 작성과 정정은 반드시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시오.
4. 본교에서 지급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답안지에 특별한 표시를 한 경우, 지정된 분량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등)
5. 답안 정정 시에는 원고지 교정법에 따라야 하고 수정액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감점 또는 0점 처리합니다.
6. 띄어쓰기를 포함하여 각 논제별로 요구한 분량 이내로 논술하시오.
7. **사회계열 문제지는 총 2장 3쪽입니다.**

※ 다음 제시문을 읽고 논제에 답하시오.

[가]

사자형 엘리트는 어떤 반대에 직면하여도 힘으로 대결할 용의가 있는 사람들로, 새로운 결합을 만들기보다는 ‘이미 존재하는 집단을 유지·존속하려는 본능’ (instinct for group persistence)이 강하다. 여우형 엘리트는 힘을 쓰기보다는 말과 조작을 선호하는 사람들로, ‘결합 본능’ (instinct for combinations)이 강해 약삭 빠르고, 혁신적이며, 교활하고, 수완이 풍부하며, 적응성이 강하다. 사자형 엘리트가 권력을 장악하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연적으로 여우형 엘리트를 기용할 수밖에 없고, 시간이 지나면 여우형 엘리트가 사자형 엘리트를 대체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여우형 엘리트는 피지배층으로 전락한 사자형 엘리트를 멀리 하며, 사자형 엘리트의 불만이 쌓이게 된다. 그 결과 사자형 엘리트는 힘을 축적한 후 반란을 일으켜 여우형 엘리트를 축출하고 권력을 차지한다.

[나]

사회 체제는 한 생산 양식에서 다른 생산 양식으로, 때로는 점진적으로 때로는 혁명적으로 이행해 왔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회 경제의 내적 모순에 의한 것이다. 수렵 생활을 하는 원시적 공동체 사회가 고대의 노예 소유제와 지주와 농노의 관계에 기반한 중세의 봉건 체제로 나아가는 역사 발전 단계가 존재한다. 상인과 기술자의 출현은 봉건 귀족을 대체하는 상업적 자본가 계급의 시작이었다. 이런 관점에서는 자본주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계급이 사라져 새로운 사회가 출현하도록 하는 노동자들의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믿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 계급의 소멸은 개인 간 모든 불평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보다 사회가 더 이상 경제와 정치력을 독점하는 소수의 지배 계급과 노동하면서도 부를 축적하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로 분리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의미했다. 경제 체제는 공공 소유가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현재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인간적인 사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이었다. 미래 사회에 대해서는 생산이 자본주의 하에서의 생산보다 더 발전하고 효율적일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다]

‘플린 효과’라 일컫는 IQ(Intelligence Quotient) 증가 현상은 1980년대 초반 뉴질랜드의 심리학자 제임스 플린(James Flynn)이 국가별 IQ 지수의 변동 추세를 조사하면서 밝혀졌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유럽·미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일본 등의 IQ 검사에서 모두 같은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후 심리학·진화생물학·사회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요 논제가 되고 있다.

플린은 미국의 신병 지원자들의 IQ 검사 결과를 분석해 이들의 평균 IQ가 10년마다 3점씩 올라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1987년 14개국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벨기에·네덜란드·이스라엘에서는 한 세대, 즉 30년 만에 평균 IQ가 20점 올랐고, 13개국 이상의 개발도상국에서도 5~25점 증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러한 IQ의 증가가 실제 지적 능력의 향상인가 하는 점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하지만 플린은 인간 집단에 특별한 유전체적 변화가 없이 짧은 시기에 그렇게 큰 진화적 변화가 나타날 수는 없다고 보고 있다. 또 IQ 증가가 지적 능력의 발전에 기인하기보다 정신적 활동을 점점 더 많이 요구하는 사회 현상의 반영으로 보고 있다.

다른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제시되고 있다. 대체로 IQ 향상의 원인을 시각 매체의 증가와 IQ 테스트의 반복, 교육의 확대, 영양 섭취의 증가, 조기 교육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일부에서는 질병의 감소를 커다란 요인 중의 하나로 보고 있으며, 최근 연구 결과도 질병이 두뇌의 기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질병의 감소가 직접 두뇌 기능을 개선하지는 못하지만, 기능의 저하를 막아 플린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라]

갓가지 죽음을 나는 이미 죽어 보았다.
갓가지 죽음을 다시 죽어 보리라.
수목 속에서 수목의 죽음을
산 속에서 돌의 죽음을
모래 속에서 흙의 죽음을
살랑대는 여름 풀 속에서 잎의 죽음을
불쌍하고 피에 젖은 인간의 죽음을,

꽃이 되어 다시 태어나거라.
수목이 되어, 돌이 되어,
물고기, 사슴, 새, 나비가 되어,
이런 갓가지 모습에서
그리움이
최후의 고뇌, 인간고(人間苦)의 계단으로
나를 밀어 올릴 것이다.

오, 떨면서 켜기는 활이여
그리움의 강력한 주먹이
삶의 양극을
서로 맞서게 굽히려 한다면!
앞으로 몇 번이고 죽음으로부터
고난에 찬 형성의 길로
찬란한 형성의 길 탄생으로
나를 몰아칠 것이다.

[마]

세계의 운명을 올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은 사실과 수치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좋고 나쁜 일의 발생 빈도를 도표로 그려보는 겁니다. 그 궤적을 통해 비로소 세계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알 수 있고, 그런 움직임의 동인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삶에서 긍정적인 사실 세 가지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인간의 생명 자체입니다. 150년 전만 해도 인간의 수명은 30년이었습니다. 지금은 70년입니다. 성장세는 멈출 기미가 안 보입니다.

둘째, 건강입니다. 위키피디아에서 천연두와 우역(소와 양 등 가축에 치명적인 바이러스성 질환)을 검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뜻을 정의한 문장이 과거 시제로 돼 있습니다. ‘천연두는 질병이었다’라고 말이지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이었던 두 재앙의 원천이 완전히 퇴치됐습니다. 소아마비와 기니벌레(사람이나 동물 피부 밑에 기생하는 선충의 일종)도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셋째, 물질적 번영입니다. 두 세기 전만해도 세계 인구의 85%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늘날 그 수치는 10%로 내려갔습니다. 2030년까지 0%가 될 것으로 유엔은 추정합니다. 모든 대륙에 걸쳐 노동 시간은 이전보다 짧아졌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거기에는 음식을 비롯해 의복, 조명, 오락, 여행, 전화 통화, 데이터도 포함됩니다.

[바]

돌고 도는 게 유행이라 했던가. 나팔바지도 돌아왔다. 패션업계에 불어온 거센 ‘레트로(복고)’ 열풍으로 1960~70년대를 풍미했던 패션 아이콘 나팔바지가 부활했다. 몸매를 한껏 드러내던 스키니진의 절대적인 인기가 주춤해진 사이 나팔바지는 패션 핫 아이템으로 다시 급부상했다.

복고 패션은 촌스러움이 아닌 트렌드를 앞서 가는 패셔니스타들의 인기 아이템이다. 세계 유명 브랜드들이 총집합한 최근의 파리나 밀라노 패션쇼를 보면 알 수 있다. 내로라하는 브랜드들이 회심의 무기로 나팔바지를 앞 다튀 등장시킨 것이다. 최고의 트렌드가 복고라더니 나팔바지의 화려한 부활이다. 영국의 ‘가디언’은 탑 디자이너들이 패션 역사의 쓰레기통에서 잠자던 나팔바지를 구해냈다고까지 표현할 정도다. 할리웃에서도 복고 패션 바람이 거세다. 가수나 패션 디자이너 등이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스키니진을 벗어 던지고 와이드 팬츠로 갈아 입었으며, 킴 카다시안과 미란다 커 등도 나팔바지 룩을 선보이며 복고 열풍에 힘을 더하고 있다.

이처럼 나팔바지 트렌드가 강세를 보이는 데는 스키니진에 오랫동안 익숙해졌던 소비자들이 보다 편안한 스타일을 원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여기다 느슨한 부츠진 같은 편안한 디자인들이 속속 등장하며 스키니진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었다.

[사]

작은 변화가 예측할 수 없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 것처럼 안정적으로 보이면서도 안정적이지 않고, 안정적이지 않은 것처럼 보이면서도 안정적일 수 있다. 1961년 미국의 기상학자 로렌츠(Edward Lorentz)가 기상 모델을 연구하며 제안한 나비효과란 이런 관점을 잘 설명한다. 이 이론에 따르면, 아프리카 적도 지방에 살고 있는 작은 나비의 날갯짓이 수개월 후 유럽에 폭우를 내리게 할 수도 있다. 이는 두 가지 방향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하나는 초기의 매우 작은 요인이 예측하지 못한 엄청난 결과와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어떤 현상의 전개가 혼란스럽게 보이는 것은 그 원인이 너무 작거나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관점은 역사에도 적용된다. 역사 속에는 복잡한 요인들이 존재하며 이런 복잡성 때문에 역사에 다양한 발전 노선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역사에 필연적 법칙이나 결정론이 통용되지 못하고, 확률적 접근만이 가능하다는 견해로 이어질 수 있다.

<문제 I>

제시문 [가]-[바]를 비슷한 주장을 담은 내용끼리 분류하고, 각 제시문을 요약하시오.

[401자 이상 ~ 500자 이하: 배점 30점]

<문제 II>

제시문 [사]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서술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제시문 [가], [나]를 비판하시오.

[601자 ~ 700자 이하: 배점 40점]

<문제 III>

의류기업 A는 지난 유행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관계가 나타났다.

짧은 바지는 나팔바지보다 2년 전에 유행이 시작됐다.
짧은 치마는 긴 치마보다 1년 늦게 유행이 시작됐다.
긴 치마는 짧은 바지보다 3년 늦게 유행이 시작됐다.

각 패션(짧은 바지, 나팔바지, 짧은 치마, 긴 치마)이 유행한 순서를 구하고 설명하시오.

의류기업 A는 2년 후의 의류를 준비하기 위해 투자하려고 한다. 현재 나팔바지 유행이 시작되었고, 이 기업은 2년 후 짧은 치마를 생산하기 위해 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제시문 마]에 근거하여 이 기업의 계획에 대해 평가하시오.

[주어진 답안지 양식 범위(700자) 내에서 자유롭게 쓰시오 : 배점 30점]